

## 生命工學에도 보호주의 바람

유엔환경기구「생물권보존국제協約추진」

한층의 흡속에 들어있는 미생물과 희귀동물의 유전자 그리고 유전공학적으로 유용한 각종 사물의 사용도 엄격한 국제감시와 규제속에 놓이게 된다.

기술·자원의 보호주의 강화 추세속에 미생물 및 각종 동식물의 유전자등 생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이 전 이용규제에 관련한 협약체결추진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고 있어 이에대한 국내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局外보호강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내생명공학기술 및 산업에도 적지않은 제약이 가해지는등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함께 관련기술이전과 생물자원이용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생물자원보유국과 非보유국간의 「기술·자원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이와관련 오는 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테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계기로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및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생태학적·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을 내세우면서 선진국은 21세기 주축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생명과학의 연구성과 및 사물의 무단 해외 유출을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유전공학적으로 개발된 각종 씨앗의 특허권 및 사용 로열티청구(소급청구까지 포함)는 물론 관련응용기술의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에 비해 미개발지역등 생태계보존도가 높은 생물자원보유국은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이용산업의 재료가 되는 각종희귀식물과 토양 및 해양미생물의 해외반입을 규제하려는 미생물 및 생명공학 자원의 무기화 움직임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 UNEP본부에서 있던 관련실무협상에 참가한 韓文

熙 유전공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협정은 생물자원 전쟁의 발발을 의미하며 국내생명공학기술과 관련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생물 및 유전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해외유출통제 ▲ 국내생물학적 다양성 보존대책 및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유전공학연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처방안을 과기처, 환경처, 농림수산부 등이 함께 논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서울신문 91.11.5>

## 槐山 자연학습원 「종합전시실」

自然환경 現場교육에 큰몫

忠北 槐山郡 청천面 송천리 忠北자연학습원에 종합자연전시실이 개설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연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실현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忠北자연학습원은 지난 88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본관2층에 종합자연전시실을 마련 각종 동·식·광물 표본 4백50여종을 전시해 놓고 관람객 맛이를 위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

동물박제표본 79개를 비롯 목초분류(1백10종), 광물(20종), 바다어류(30종), 민물어류(20종), 나비(1백9종), 목재(84종)표본 등을 부문별로 전시한후 배경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처리해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표본중에는 뱀골산호랑이 3마리와 수령2백년의 바다거북, 그리고 갯가지 희귀 동·식물이 많아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까지 좋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忠北자연학습원은 「자연전시실은 자연교육을 위한 시청각자료도의 단순활동만이 아니라 환경생태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인식 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청일보 91.11.9>

## 희귀식물 「고란초」 智異山자생

충남 부여 고란사를 제주도 한라산, 울릉도, 전남

목포등지의 산지 벼랑에서 주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알려진 고란초가 지리산에도 자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남원군 주천명 지리산 부근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란초는 10-20cm가량의 녹색잎에 비닐 모양의 잔털과 뒷면에는 각 지맥사이에 10여개의 囊堆가 두 줄기로 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신문 91. 11. 23>



▲ 지리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阜蘭草

## 釜山市 썩는 비닐봉지 무료배포 3년내 완전분해 汚染방지 한몫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釜山市가 전국 관공서로서는 처음으로 「썩는 비닐봉지」 5만매를 구입 구청과 자연 및 환경보호단체에 무료배포.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비닐봉지는 흙속에서 자연분해되기까지 무려 4백여년이 걸려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썩는 비닐봉지는 완전분해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아 환경오염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국내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썩는 비닐봉지는 폴리스타치 성분이 20%이상 포함돼 있어 토양 및 물속에서 자연분해되며 분해된 후에는 이산화탄소와 물만 남게 돼 전혀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게 특징이다.

부산시가 일반비닐봉지보다 1-20원이 비싼 썩는 비닐봉지를 구입 배포하게 된 것은 최근 일반인들과 각종 행사시 사용되는 비닐봉지가 새로운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釜山市 관계자는 「올 10月末현재 釜山지역에서 수거된 폐비닐봉지는 1백14만매에 달한다」며 내년에는 또 이와 병행 「각기관·단체 등의 행사시 썩는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홍보활동 적극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매일신문 91. 11. 25>

## 永郎 金允植생가 復元

4천만원 들여 着工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의 한사람인 永郎 金允植 시인의 생가가 옛모습대로 복원된다. 全南 康津郡은 지방문화재 89호로 지정된 永郎생가가 일부원형과 다른 형태로 보존돼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의 고증을 거쳐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키로 했다.

이번 복원사업은 현재 기와로 되어있는 지붕을 다시 추가로 복원하고 콘크리트 기단은 자연석으로, 마루와 벽체 등은 일부를 다시 부엌으로 다시 만드는 등 변형되기전 永郎시인이 살았을 때 모습으로 복원된다.

郡은 永郎생가의 복원을 위해 당시 한마을 친구였던 車富嶺씨(89. 서예가)와 永郎의 4男 金炫邵씨(55. 단국대 교수) 등의 고증을 거쳐 지난 10월 실시 설계를 끝냈는데 복원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光州日報 91. 12. 15>

## 희귀樹種 노각나무種子 1천5백본 채취

경북 영풍군은 최근 세계적으로 희귀수종인 노각

나무의 번식을 위해 풍기읍 수철리 희방사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노각나무로부터 종자 1천5백본을 채취했다. 노각나무는 세계적으로 7종이었으나 한국산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비단나무로 불리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경북과 충북 이남 지역에서 소수가 자생하고 있는데 고급가구 및 장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觀光 및 레크레이션분과 학술세미나 개최**  
—11月9日 서울시립대서 국립공원 관련주제 발표—

한국조경학회(회장 이규목 서울시립대 교수) 주최 관광 및 레크레이션분과 학술세미나가 지난 11月9日 서울시립대 회의실에서 학계 및 유관단체에서 60여 명이 參席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모두 국립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자와 참가자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국립공원 제도 및 실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國立公園의 레크레이션 利用開發(김용근·동신대학 환경조경학과 교수)

○국립공원의 수용력과 관리(안성로·신구전문대 조경학과 교수)

○대안적인 국립공원 시설개발의 전략(박재철·전주우석대 조경학과 교수)

○國立公園의 視覺資源管理(金世泉·全北大 造景學科 교수)

○국립공원 이용자의 환경훼손 행태 및 관리(金成基·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남부 관리사무소장)

**해외등반보고회 및 산악보존 대토론회**

—대한산악연맹주최 12月7日 프레스센터서—

대한산악연맹(회장 임철순)은 12月7日 10:00부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해외등반보고회 및 산악보존 대토론회와 해외산악인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실시된 산악보존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보존방안(임충식·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부장)

○등산에 의한 산악훼손과 개발에 의한 훼손(이장오·사람과 산 편집위원)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한 장기대책(이경재·서울시립대 교수)

○산림에서의 폐기물 처리방안과 대책(이주성·산림청 보호과장)

○산악단체와 산악인들에 의한 산악보존방안(최중기·인하대 교수)

한편 이날 해외산악인 초청강연회에서는 E.V 미슬로브스키 소련산악연맹 회장의 “소련의 산악보존과 에베레스트 남서벽 보고”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日本, 오존층保護위해 일부新物質 규제**

日本후생성은 오존층과괴를 막기 위해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인 「프론」을 비롯, 전자부품 세정에 사용하는 사염화탄소·트리클로로에탄 등 신물질을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배출억제·사용제한 등을 하기로 했다. 日本후생성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열렸던 몬트리올의정서 제2회 조약국회의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해 이들 화학제품의 사용을 줄이기로 합의한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후생성은 내년 1월부턴 시행될 개정 오존층 보호법에 맞춰 내놓게될 「배출억제 합리화지침」에 이들 신물질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히고 각 기업은 오존층과괴로 인한 환경오염·인적피해 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조치에 적극 따라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생성의 한관계자는 특히 프론 및 4염화탄소는 내년부턴 적극적인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클리닝에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탄은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도 대체기술의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후생성은 또 트리클로로에탄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용기에 뚜껑을 꼭 닫아두거나 재이용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프론에 비해 오존층에의 영향이 적은 편이나 보다 환경에 적합한 대체물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